

[FICC & Equities Macro Dashboard]

모순의 시장: 과열된 미국, 소외된 한국, 그리고 자본의 대이동

글로벌 시장 전략 브리핑 및 자산 배분 가이드

2026.08.15

Executive Summary: 3대 핵심 관전 포인트



KOSPI의 역설

6,977.94 (+2.42%)

7,000선 임박

- 외국인 3조원 순매수 주도
- 개인 투자자 극단적 이탈 및 피로도 최고조



미국 증시의 역설

S&P 500 7,798.99

완벽한 보합 (0.00%)

- 버핏 지표 238% 사상 최고치
과열 도달
- 소매판매 급감에도 성장주(테슬라,
마이크론) 쏠림 지속



FICC의 역설

WTI 유가 \$81.85

+\$2.62 상승

- IEA/OPEC 수요 감소 전망에도
유가 상승 역설
- 달러 약세 속 위험자산(비트코인)과
안전자산(금) 동반 랠리

미국 (US)

지수 보합세 (0.00%).
CPI/PPI 둔화 안도감 vs
금리 부담 팽팽.

유럽 (EU)

DAX +0.80%, FTSE +0.79%.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에
따른 방산주 강세 주도.

일본/호주 (APAC)

닛케이 +0.46% (엔화 약세 수혜),
ASX +0.52% (자원주 상승).

중화권 (China/HK)

항셍 +1.59% 급등 vs 대만
등 비중화권과 뚜렷한
디커플링 전개.

Core Insight: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CPI/PPI)가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하며 전반적 우상향 전개.

미국 주요 지수 완벽한 보합 (S&P 500, NASDAQ, DOW +0.00%)

↑ 상승 압력
(Upward Pressure)

- 테슬라·마이크론 등 성장주 강력한 매수세
- 물가압력 완화 (CPI/PPI 둔화 안도감)



238%
(버핏 지표 사상 최고치)

↓ 하락 압력
(Downward Pressure)

- 소매판매 예상 밖 급감 (소비 위축 우려)
- 장기 금리 부담 (10년물 국채 4.645%, +5bp)
- 재정 적자 우려 고착화

결론: 겉으로는 평온한 보합세이나, 내부적으로는 238%에 달하는 버핏 지표와 금리 상승이 충돌하는 '위험한 균형' 상태.

외국인 3조원 매수 주도

KOSPI: 6,977.94
(+164.60pt, +2.42%)

5거래일 연속 상승,
7,000선 시대 돌파 임박.

“한국 증시 믿은 내가 바보”

“결혼 자금 날렸다”

개인/기관 동반
300만주 이상 순매도

Insight: 지수의 폭등과 대중 심리의 완벽한 괴리. 외국인 자본이 주도하는
철저한 수급 장세 전개로 항복(Capitulation) 심리 확산.

KOSPI 쏠림 현상의 실체: 반도체·자동차 투톱 리드

삼성전자

274,500원 (+2.43%)

시총 1604.8조

SK하이닉스

1,645,000원 (+3.26%)

시총 1201.7조

현대차

453,000원 (+8.24%)

시총 92.8조

비금속광물
(-1.05%)

증권
(-0.96%)

의약품 / 제약지수
(동반 하락)

코스피 7천선 랠리의 실체는 시장 전반의 상승이 아닌 '전기전자(반도체) 및 운수장비(자동차)' 특정 섹터의 강력한 쏠림 현상.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속출하는 철저한 종목 장세.

디커플링 진단 매트릭스 (Decoupling Diagnostic Matrix)

	미국 시장 (US Market)	한국 시장 (KOSPI)
현재 국면 (Phase)	사상 최고치 과열 상태 (버핏지표 238%), 지수 보합.	7,000선 돌파 직전의 강한 모멘텀 (+2.42%).
핵심 동인 (Drivers)	스페이스X 등 미래 모멘텀 기반 성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대형 실적주.
수급 및 심리 (Flow & Sentiment)	소매판매 위축 우려 속 기관 주도의 방어 장세.	외국인 3조원 폭풍 매수 vs 국내 개인 투자자 극단적 이탈.
단기 리스크 (Short-term Risk)	10년물 금리 상승(4.645%) 및 막대한 밸류에이션 부담.	특정 섹터(반도체/자동차) 쏠림 심화 및 착시 효과 우려.

글로벌 자본의 대이동 (Capital Crossover Migration)



Insight: 한국의 국부(연기금/개인)는 과열된 미국 성장주로 향하고, 반대로 글로벌 외국인 자본은 저평가된 한국의 반도체 실적주를 쓸어담는 기이한 자본 교차 현상 발생.

FICC 모순 모델: 바벨 장세(Barbell Market)의 심화

인플레이션 헷지 자산 / 안전 자산

원유 (WTI) \$81.85 (+\$2.62)

역설: IEA/OPEC 수요 감소 전망에도 감산 기대로 상승

금 (XAU) \$24 (+\$18)

안전 자산 선호 심리

위험 자산 및 매크로 / Risk & Macro

비트코인 \$67,350 (+\$1,240)

ETF 순유입 지속 (위험 선호 최고조)

미 국채 10년물 4.645% (+5bp 상승)

달러 약세 속 금리 상승 모순



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가 혼재된 기형적 환경. 시장은 극단적 위험 자산(비트코인)과 실물 안전 자산(원유/금)을 동시에 매수하는 바벨 전략을 취하고 있음.

핵심 촉매 일정 (Catalyst Timeline)

배경 상황 (Context):

미국 소매판매가 예상 밖으로 감소. 이번 주 실제 주 실적 발표가 소비자의 실제 체력을 확인하는 결정적 리트머머스 시험지.

8월 18일 (화)



HD (Home Depot) 실적 발표

주택/건설 경기 및 내구재 소비
심리 확인.

8월 20일 (목)



WMT (Walmart) 실적 발표

필수소비재 및 미국 소매 유통의
최전선 점검.

Action Plan:

주요 유통주 실적 발표 전후로 과열된 미국 증시의 대규모
포지션 조정 및 변동성 확대 대비 필수.

Actionable Strategy Matrix

KOSPI
(한국 증시)

[비중 확대 / 단기 매수]

외국인 수급 주도 KOSPI 7,000선 근접 돌파 모멘텀 활용.
쏟림 현상이 강한 반도체 및 자동차 섹터 집중.

US Equities
(미국 증시)

[비중 축소 / 헷지]

버핏지표 238% 최고치 경신 및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4.645%)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붕괴 및 변동성 리스크 대비.

FICC
(원자재 및 귀금속)

[롱(Long) 유지]

원유, 에너지, 귀금속 중심의 인플레이션 헷지 '바벨 전략' 유효.
지속되는 달러 약세 기조 적극 활용.

개인 투자자의 극단적 공포(FUD)와 시장의 과열 지표 이면에서,
진정한 기회는 오직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자본 흐름(Capital Flow)' 추적에 있습니다.